

학교 폭력 예방 교육

가.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학교폭력이란?	유형	
<p>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p> <p>(「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p>	신체적 폭력	때리기, 밀기, 찌르기, 차기 등
	언어적 폭력	놀리기, 비하하기, 욕하기, 모욕하기, 위협하기, 소문 퍼트리기 등
	금품갈취	돈이나 물건 요구 등
	강요	강제적 심부름, 강요 등
	성폭력	언어적, 비언어적 성폭력
	따돌림	따돌림
	사이버 폭력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나. 학교폭력 피해자, 가해자의 징후

학교폭력 피해자	학교폭력 가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옷, 소지품, 운동화 등을 자주 잃어버린다. ▶ 다친 상처나 멍 자국을 몸에서 발견하게 된다. ▶ 일기장 등에 '죽이고 싶다.' 혹은 '죽고 싶다.' 같은 표현이 있다. ▶ 용돈이 모자란다고 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용돈을 달라고 한다. ▶ 몸이 좋지 않다고 호소하며 학교 가기를 싫어한다. ▶ 평소보다 어두운 얼굴 표정으로 수심이 있다. ▶ 친구들과 따로 떨어져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규칙과 질서를 지키려 하지 않는다. ▶ 부모나 어른들에게 저항과 분노를 품고 있다. ▶ 힘으로 다른 친구들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다. ▶ 인내심이 부족하고 화를 잘 내며 충동적이다. ▶ 작은 칼 등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다. ▶ 늦게 귀가 하거나 여러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

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 노력해야 할 점

- 부모의 바른 언행으로 항상 자녀의 모델이 됩니다.
- 자녀의 대화내용 뿐만 아니라 말투와 표정에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 필요 시 학교 선생님과 정보를 교환합니다.
- 컴퓨터, 모바일 폰 등의 정보통신매체를 올바르게 사용하게 합니다.
- 용돈이 필요한 이유나 쓰는 곳을 물어 봅니다.
- 1주일에 두 번 이상은 가족끼리 다정한 식사 시간을 갖습니다.

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 교육

1.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학대의 행위자 대부분은 부모!)

♣ 아동이란? 📌 만 18세 미만 (즉, 고등학생도 포함)

2. 아동학대 유형 및 처벌 내용

학대 유형	학대 내용	처벌
신체적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피해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방임·유기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아동학대의 원인과 후유증





학대행위자인 부모들의 특징

-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30.4%)
-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23.3%)
- 부부 및 가족갈등 (10.1%)
- 성격 및 기질문제 (8.0%)

출처: 2012년도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보건복지부)

- ▶매년 학대행위자의 **83% 이상이 부모**
- ▶방임의 경우, 부모에 의한 발생률 90% 이상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교육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 필요

구분	요인	결과
 학대자 / 아동 개인	정신장애 / 학대경험 / 약물 중독 /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 충동 /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 부족 등	- 학대로 인한 사망 - 아동에게 심은 상처 - 아동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낌 - 아동의 신뢰가 파괴됨
 가족	빈곤, 실업 /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 외면하지 못한 부부관계 / 가정폭력 / 부모-자녀 간 애착부족 등	- 비가해가족의 죄책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부모의 자녀 양육 기능 저하 - 부모 및 형제와의 다툼 증가 - 가출
 사회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김 / 체벌 허용 /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미비 등	- 아동학대의 세대간 전이 - 학교폭력, 비행, 자살이 증가함 - 약물 남용 및 중독 - 성매매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함

4. 아동학대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및 「아동복지법」개정으로 아동학대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 대폭 강화 (2014. 1.28 공포, 2014. 9.29 시행)

1. 아동학대 가중처벌 규정 신설
(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학대중상해) 3년 이상 징역
(상습범 및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시) 형량의 1 / 2 가중 처벌
2.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운영 금지
3. 중상해 및 상습학대행위자는 검사가 **친권상실** 청구
4. 신고의무자 제도 강화(과태료 500만 상향조정, 아이돌보미 등 직군 확대)
5. 현장조사권 강화 - 학대행위자 임시조치(**친권제한, 격리** 등) (최장4개월)
6.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기존은 성폭력 사건만 혜택)
7.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가능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p>직무상 아동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의 시민들에게는 신고 의무 부여 “신고의무자들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누구든지 신고 가능!</p> <p>- <아동복지법 제25조 제2항></p> <p>◎ 신고 및 상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 112 -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www.safe182.go.kr) - 사이버112(cyber112.police.go.kr)
-------------	---